

# 민간소비가 지탱한 경제... 1분기 성장률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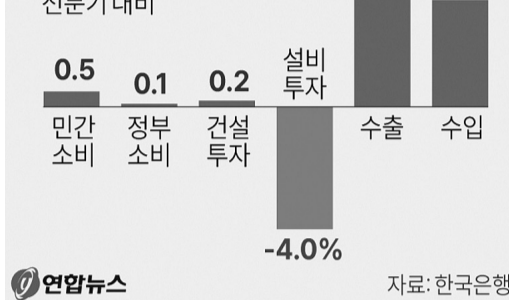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추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주요 부문별

2023년 1분기 기준 (잠정) 전분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민간소비 0.5% 늘어 설비투자 4.0% 급감 상쇄...수출 증가 폭 3.8% 한은, 2월 전망치 1.6% 하회...다음 달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시사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4분기 2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경험한 우리 경제는 민간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다시 플러스(+) 전환했다.

다만 수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데다 투자 역시 부진하면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올해 연간으로는 1%대 중반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0.3% 성장...투자·수출 부진 속 민간 소비가 견인=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3%로 집계됐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분기(-0.4%) 마이너스 전환했지만, 한 분기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수출과 투자가 여전히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플러스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2분기(2.9%)와 3분기(1.7%) 빠르게 회복했던 민간 소비는 4분기(-0.6%) 주춤했지만, 올해 1분기(0.5%)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후 여행 및 공연 등의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민간 소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2.9%)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부 소비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올해 1분기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1분기 0.2%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고, 지난해 4분기 2.7%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 기계류를 중심으로 4.0% 감소하면서 부진했다.

지난해 4분기 각각 4.6%와 3.7% 감소했던 수출과 수입은 올해 1분기 3.8%와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부문의 부진이 지속됐지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와 1차 금속, 2차전지, 화학제

품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수입은 화학제품 등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1분기 수출 증가 폭(3.8%)은 2021년 1분기(4.1%) 이후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1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은 지난해 4분기(-0.5%포인트)보다는 개선됐지만, 1분기(-0.1%포인트)에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199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은, 연간 성장률 하향 조정 예고 속 하반기 반등 여부 주목=1분기 플러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본격 회복을 예상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당초 한은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올해 상반기 1.1%, 하반기 2.0% 성장하는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러나 이달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 오는 5월 내용을 수정 경제

전망에서 전망치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7%에서 지난 2월 1.6%로 낮아진 데 이어 다시 3개월 만에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은이 추가로 내놓을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1.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대 성장률 자체는 2%대로 여겨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라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에도 성장률 전망 추가 하향 조정을 예고한 것은 우리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 시점이 불분명한 데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둔화 원인으로 반도체를 적시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바쁜 농번기 어르신들에 밀반찬 나눔 행사



### 농협 전남본부, 200가구 전달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최근 (사)고향주부모임전남도지회(회장 신금숙), 신북농협(조합장 이기우)과 함께 고령농업인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밀반찬 나눔행사 참가자 30여명은 신북농협 지역문화복지센터에 모여 김치(500kg 상당)를 담가 관내 취약계층 200여 가구에 전달했다.

(사)고향주부모임은 매년 농번기 철 소외되기 쉬운 고령 어르신들의 밀반찬 지원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의 농사일과 가사 병행의 고충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박종택 본부장은 "고령 어르신들에게 밀반찬 나눔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달해 준 고주모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농협에서도 사회 전반에 나눔의 온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증권업계, 'SG증권발(發) 폭락 사태' 종목 신용대출 제외

### 선광·하림지주·세방 등 8개 종목 위탁증거금도 100% 징수 상향

증권사들이 'SG증권발(發) 폭락 사태'에 포함된 종목들을 신용대출 종목군에서 제외하거나 증거금률을 높이는 조치가 나왔다.

키움증권은 25일부터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 등 8개 종목을 신용용자와 담보대출 가능 종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위탁증거금도 100% 징수로 상향했다.

이들 8개 종목은 전날 오전 갑작스럽게 매도 물

량이 쏟아져나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종목들로, 매도 창구 상위에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이 자리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가가 급락해 미결제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증권도 이날부터 이들 8개 종목과 2차전지 관련주 6종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대출 종목군에서 제외했다.

이들 종목의 증거금률이 기존 30~40%에서 100%로 조정되면서 차입을 통한 종목 매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NH투자증권 역시 이날부터 선광을 제외한 나

머지 7개 종목과 애경메이컵에 대한 신용대출을 중단했으며, 증거금률도 100%로 올렸다.

지난 19일에도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 등 포스코 계열사 2종목과 알엔투테크놀로지 등 동일하게 신용공여·미수거래를 제한했다.

증권업계에선 전날 폭락 사태의 원인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체로 차익결제거래(CFD) 거래 과정에서 반대매매가 대량으로 일어났다는 쪽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다올투자증권, 서울가스, 선광에 소수 계좌의 거래가 집중됐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 3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 2월 은행 연체율 0.36%...2년 6개월 만에 최고치

### 신용대출 연체율 0.64% 급증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6%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말 대비 0.05%포인트, 작년 2월 말보다 0.11%포인트 각각 높아진 수치로 2020년 8월(0.38%)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2월 신규 연체 발생액(1조9000억원)은 전달과 비슷한 규모였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8000억원)는 전달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2월 신규 연체율은 0.09%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높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9%)은 전달 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7%)은 0.08%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2%로 0.04%포인트 올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0%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0.09%포인트 오른 0.64%였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금융지원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최근 경기 하강 국면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